

#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등 9명 北 평양 남북회담 초청”

## 임종석 비서실장 “남북 역사 새 장 열리는 시기 대승적 동행해주길 요청”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정상회담에 동행할 국회 정당대표 9명을 선정하고 초청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평양 정상회담에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체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 9명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꼭 함께 해주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문화상 의장은 이미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해 두고 있다”면서 “아직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어서 이번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는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안정되게 열

릴 것이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 “비핵화와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면화 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는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점이 제가 따로 설명 안드려도 될 것 같다”며 “손학규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 강조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현실에서 얼마 간의 정치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면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북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 장단 5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동행 해주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특별수행원 개념과 달리 새롭게 국회 정당대표를 별도로 구성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국회가 정상회담의 수행으로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맞는냐’는 이런 논의가 일었던 것을 저는 잘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이번 준비위에서는 공식·특별·일반수행원 외에 이 분들을 별도로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초청에 응하면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이 의미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의 노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서로 손 내미는 홍영표-김성태  
성태 원내대표가 손을 내밀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주례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기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

# 文대통령 지지율 53.5%...5주 연속 최저치 경신

민주 40.4% · 한국 19.5% · 정의 9.9% · 바른 7.5% · 평화 2.7% 順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 주 대비 1.7%p 떨어진 53.5%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8%)에 따르면 전체의 53.5%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지난 주간집계 대비 0.5%p 오른 40.5%(매우 잘못 23.8%·잘못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p 증가한 6%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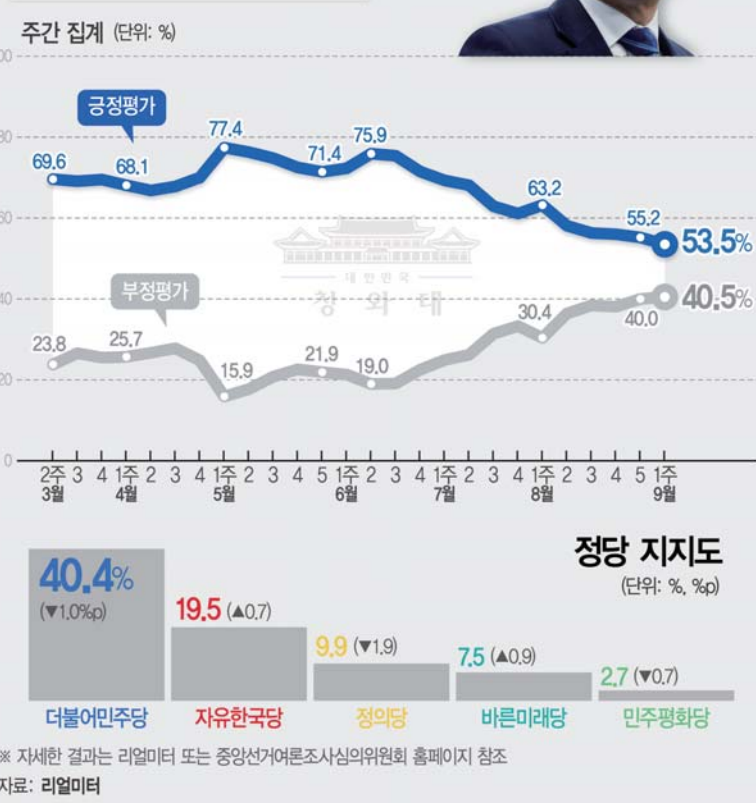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에서는 다소 올랐으나,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경남·울산(PK), 호남 30대와 2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내렸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달 31일 일간집계에서 54.3%를 기록한 후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논란이 일던 3~5일에는 52.9%로 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20년 구형 관련 보도가 있던 6일에는 52.8%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보도가 이어지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서울 국정원장을 각각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9월3일~7일, 전국 성인 2,509명/ 8.0%의 응답률  
표집오차 ±2.0%(95%신뢰수준)/ 의뢰기관·CBS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7일엔 54.6%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평화당 최경환 “5·18진상조사위 구성 지체 유감”

## “지난 6월 출범 공동조사단, 3개월간 성과 전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이라도 사무실을 내고 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14일 특별법이 공포

된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상당 시 지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하게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동조사단이 유명무실하게 활동할 것 같으면 차라리 1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법제기구로 운영하게 될 진상조사위에 업무를 넘겨 좀 더 능동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3차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려 북미회담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남북 교류 확대로 이어져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북한참여 문제까지 순리대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당직 인선에 승용을 트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원내대변인을 자청해 회제를 모셨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